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⑯ 관세음보살32응탱 (2)



▶한줄 요약
조선 전기 대표 불화 중 하나인 '관세음보살32응탱'에는 관세음보살이 뭇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나투는 모습들이 담겼다.

관세음보살 '응신'은 '자비'에 바탕한다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명작 중 하나인 '관세음보살32응탱' 에는 관세음보살이 뭇 중생을 구제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등장한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자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니, 이는 보살의 불가사의한 힘 때문이다. 혹 큰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으로 가게 되며, (중략) 혹 큰 폭풍이 불어와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더라도, 누구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觀世音)'이라고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보문품' 중에서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의 중생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준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을 계기로 관세음보살은 대중과 가장 가까운 '전지전능한 신(All-mighty God)' 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속에 자리매김한다.

필자가 보문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러한 신통력의 경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과장된 의탁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문품이 '방편의 극치 · 응신의 극치 · 자비의 극치' 임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방편=응신=자비' 는 대승불교의 범주에서 사실상 상통하는 용어이다. 불성(佛性)의 양면인 '자수용신과 타수용신' , 즉 '지혜와 자비' 라는 두 축의 성품 중 '자비' 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자비는 '보살' 이라는 신격으로 나타나고, 보살은 '방편' 으로 중생을 제도해야한다는 것이 〈법화경〉의 요지이다. 이러한 〈법화경〉의 요지가 경전 말미의 보문품에서 그 대미를 장식하는데, 그 내용은 응신이라는 방편이다. 즉, 최고이자 최상의 방편은 상대(중생)의 근기(根機)를 통찰해 보고, 그것에 맞게 응신해 구제의 신통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먼저, '자비' 란 무엇인지 보도록 하자. 관세음보살이라 하면 보살 중의 보살인데, 대표적인 자비의 화신으로 유명하다. 자비는 중생을 '맑히는 기능' 을 하여 '청정자비' 라고 부른다. 탁한 에너지의 중생을 청정한 에너지로 채워줌으로써, 탁한 에너지로 발생했던 고통 · 번뇌 · 질병 등을 물리쳐준다.

각성(覺性, 또는 불성)에도 등급이 있듯이, 자비(慈悲에)도 등급이 있다. 대표적인 깨달음의 등급을 언급하자면, 선정(사마타)에는 그 고요함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 4선정이라는 등급이 있다. 위빠사나의 지혜는 통찰의 밀도와 날카로움의 정도에 따라 16단계(또는 10단계)로 전개된다. 이러한 등급이 올라갈수록 또 섭렵할수록 더욱더 완벽한 청정함에 가까워진다.

자비의 단계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화엄경의 '보살10지' (또는 10지위)가 있다. 보살10지 중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제9지와 제10지를 보면, 제9지는 "선혜지(善慧地)로 보살이 거리낌 없는 힘으로 설법하여 이타행(利他行)을 완성하고 지혜의 작용이 자재한 지위"이고, 제10지는 "법운지(法雲地)로 대법신(大法身)을 얻어서 자재력을 갖춘 자리이며 대자비(大慈悲)가 구름처럼 일어나는 지위" 이다. 보문품의 관세음보살은 보살10지 중 최종적 경지에 해당하는 제9지와 제10지의 신통력을 구비한 보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의 중생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구제 핵심은 중생 근기 맞춰 응신
자비심 없이 불가능한 거룩한 행보
'관세음보살32응탱' 응신 모습 담아


그림①


그림②


그림③


그림④

화면 한 가운데의 관세음보살(그림①)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야차의 모습으로, 부인의 모습으로(그림②, ③, ④)으로 변신해 중생을 구제한다. 이 자실이 그린 '관세음보살32응탱' 의 부분. 조선 전기인 1550년에 조성됐으며, 현재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돼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중생심(이기심)으로만 살기에 자비심(이타심)을 잘 모른다. 이에 초보적인 단계에서 '자비' 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비는 쉬운 말로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우선, 이성 간의 끌림에 있어 애욕인지 사랑인지부터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집착인지 사랑인지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욕은 집착에 근간을 두고, 사랑은 연민에 근간을 둔다. 여기서 애욕과 사랑을 구분하는 법은 간단하다. "너는 나로 인해 행복하니"라고 하면 사랑이고 "너는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니"라고 하면 집착이다. 상대방의 행복이 안중에 없는 관계라면, 그저 내 욕망만 채우는 비인간적인 관계일 뿐이다. 연인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는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집요한 불만과 강요는 계속된다. 또 집착과 소유욕이라는 탈을 쓰고 억울한 희생은 계속된다.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사랑을 '에로스' 와 '아가페' 로 구분한다. 성욕에 근거한 본능적인 사랑은 에로스이다. 반면, 아가페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총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랑을 말한다. 여기에 '필리아' 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애(友愛)를 말한다. 남녀 간의 서로에게 결여된 것에 끌리는 에로스, 또는 쌍방의 호의적 교환인 필리아와 같은 조건적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인 아가페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불교에서는 '자비' 라고 한다. 자비(또는 아가페)는 바라는 것 없고 분별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도 무차별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대상은 나와 친밀함 관계없이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존재로 확대된다.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일 때, 우리는 드디어 결핍의 감옥에서 해방된다. 기독교에서는 이 같은 아가페적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타적(利他的)인 사랑을 구현하는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신(神)' 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보살' 이라 한다.

응신, 자비의 최고 등급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그려진 관세음보살로는 '수월관음' 이 있다. '수월관음도' 에는 청정한 에너지 그 자체인 수월관음의 몸체와 거기서 방사되는 투명한 빛(광배)이, 뭐라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그 밝고도 따듯한 투명함의 묘사는, 주지하듯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지 오래이다. 수월관음 주변으로 묘사된 정병 · 버드나무 가지 · 대나무 · 파랑새 · 선재동자 등은 모두 청정을 상징하는 도상들이다. 깊고도 그윽한, 그리고 기상천외한 섬세한 디테일은 섣불리 다가가기 힘든 격조 높은 아취를 풍긴다.

반면, 조선시대의 관세음보살은 본 작품(관세음보살32응탱)에서처럼 활달하고 위력적이며 위풍당당하다.(그림①) 보살의 표현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의 치밀한 철선묘(鐵線描, 선의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것)의 표현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경우는 강약의 리듬으로 파도치는 비수선(肥瘦線)을 쓴다. 또 고려시대에는 세부 묘사에 치중하여 화려하고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녹색과 주색朱色의 대비감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컬러감이 돋보인다. 이러한 전형적인 조선적 특징을 보이는 관세음보살(그림①)의 아래로는, 관세음보살의 응신의 장면들(그림②, ③, ④)이 무수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7난3독(七難三毒)의 사건 사고들의 장면이 관세음보살의 발치 아래에 묘사돼 있다. 폭풍을 만나 바다에 떠내려가는 장면,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 칼로 목을 내리치는 장면, 독약을 삼킨 장면, 맹수 또는 강도를 만난 장면,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만난 장면 등. 온갖 위험에 직면한 중생들 앞에는 관세음보살이 변신해서 나타나 이들을 구제한다. 구제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백 천 만 억 중생이 갖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을 모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觀하고 곧 해탈케 하느니라." 결국,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단, 마음을 모아 불러야 한다.

관세음보살의 중생 구제 방법의 요지는 '중생의 근기(수준)에 맞게 변신' 이다. 이것을 '응신' 이라하는데, 이것은 중생에 대한 진정한 '자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는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에까지/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모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믿음과 근기의 날카롭고 둔함을 보아/ 제도할 바를 따라 곳곳에서 설하되/ 이름도 다르며 수명도 달랐으며 또는 열반에 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해/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의 마음을 내게 했다."

–〈법화경〉 '여래수량품' 중에서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부대·교도소 등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세요
최고의 언론 포교 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法보시 신청
02-2004-8212